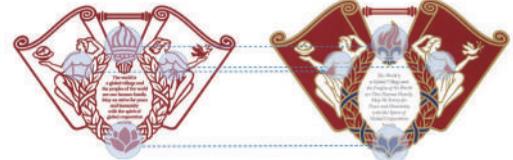


4》 UI디자인 개편



7》 관광대학원 논문표절 교수 징계 여부



2015-1학기 사회봉사 서류접수

제출서류 : 학점이수신청서, 활동확인서, 결과보고서, 활동사진(2장 이상), 설문지 각부

서류 제출 장소 : 서울캠퍼스 생활과학대학 612호 (지구사회봉사단 사무실)

서류 제출 기간 : 2015년 5월 26일(화)~2015년 6월 5일(금) 오후 5:30

사설

창간 60주년, 언론의 기본으로 돌아가 경희와 함께 호흡하겠다

1980년대 중반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언론은 유일무이한 콘텐츠를 다루는 매체였다. 외부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소속 대학 내부의 이야기는 물론이거니와, 서슬 펴는 당대 군사정권 아래에서 폐기어린 사회비판의 목소리를 담아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언론은 이렇다 할 대학 문화가 존재하지 않던 그 시절에 대학생만의 문화를 형성해나가고 독려하는 존재였으며, 일간지들이 머뭇거리던 그 순간에도 여러 가지 실험적 시도를 시행하며 미디어 변화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이렇던 대학언론은, 2000년대 이후로 이념논쟁이 수그러들고 미디어 환경이 급속도로 재편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동력 창출을 이뤄내지 못하며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는 듯한 모습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기성언론과 변별되는 명확한 시대적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는 뉴미디어의 틈바구니에서 혁신보다는 생존을 고민하며 시나브로 쇠락해온 것이 지난 10여 년 간 대학언론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대학언론의 이런 ‘방황’이 곧 대학언론의 ‘매체적 효용의 종언’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대학언론의 전제적 속성상 때로는 논지의 전개에 엄정성과 정치함이 부족할 수 있을지도, 여전히 대학언론은 대학의 이야기를 폭넓게 생산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매체다. 학내 각급 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SNS계정이나 이메일 뉴스레터처럼 단순 정보성 팩트를 전달하는 매체는 이전 대비 급증한 상황임에도, 그 팩트들이 지나는 의미나 팩트 간에 존재하는 함의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보도하는 기능을 갖춘 학내 미디어는 사실상 대학언론이 유일하다.

저널리즘의 본질이 겉으로 드러난 ‘사실’의 꾸러미를 2차, 3차로 가공해서 그 안에 내재된 ‘진실’을 추구해나가는 것이라 본다면, 뉴미디어의 급증 속에 정보전달 창구는 많아졌으나 개별 콘텐츠의 깊이는 점차 저하되고 있는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은 오히려 대학 내에서 대학언론의 역할과 사명이 더욱 더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신문이 경희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희구성원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에서 구성원이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대학주보를 꼽은 것은 우리학교 구성원이 다매체 환경 속에서 대학언론에 기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제 창간 60주년을 맞은 대학주보는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하며 대학언론 본연의 소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겠다. 60년 역사라는 구호 속에 뒤섞여 있는 오랜 유산들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키고 가져가야 할 것들과 혁신의 뒤 안으로 과감히 보내야 할 것들을 냉정하게 분별하며, 언제나 경희 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향한 저널리즘을 구현해가려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구성원이 원하는 경로와 방식으로 뉴스 콘텐츠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외연의 혁신을 경주해갈 것이며, 대학주보가 살펴본 경희의 하루, 하루는 오랜 누적을 통해 곧 경희의 역사 그 자체로 남게 됨을 상기하며 시간 앞에 부끄럼지 않은 기록을 위해 기자적 양심을 다해나갈 것이다.

창간 100주년, 그리고 그 이상까지, 대학주보는 경희의 모든 순간 곁에 함께 호흡하며 나아갈 것이다.



지난 15일 본관앞에서 열린 개교66주년 기념행사에서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3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교가>와 <목련화>를 부르고 있다

편곡된 <교가>, <목련화> 처음으로 울려퍼져

개교66주년 기념행사

최재원 기자 jankin1997@knu.ac.kr

“온오한 학술연구 온갖 노력 바치고….”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3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지난 15일 개교 66주년 기념행사에서 <교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웅장한 선율과 어우러진 합창이 끝나자 청중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합창단은 바로 <목련화>도 선보였다. 지난 해 개교 65주년을 맞아 두 노래의 편곡을 의뢰한 뒤 처음으로 청중에게 소개된 순간이었다.

<교가>와 <목련화>는 고(故) 조영식 학원장이 각각 1953년과 1974년에 직접 작사했다. 여기에 음악대학 김동진 전 학장과 박태준 작곡가가 각각 곡을 입혔다. <교가>의 노랫말

에는 학술연구와 진리탐구를 통해 전 인류의 평화를 추구해, 보다 나은 미래세계를 구현하자는 염원이 담겨있다. <목련화>에도 추운 겨울을 견뎌낸 강인하고 아름다운 목련처럼 새 시대의 선구자가 되어 배달(倍達)의 얼을 되살리자는 이상이 담겼다.

두 노래에 담긴 가치는 여전히 우리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상을 반영한다. 다만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곡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예술·디자인대학 포스트모던음악학과가 편곡을 맡았다. 편곡작업에 참여한 이우창(포스트모던음악학) 교수는 “교수진과 재학생들 모두 적극 참여했다”며 “요즘 정서와 리듬에 맞게 오키스트라 버전으로 새로이 단장해 진행된 <대학의 미래와 핵심가치> 설문조사와 <미래리포트> 연구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목련화>와 <교가>는 각각 100가지 종류로 편곡됐으며, 그 중 구성원에게 공지할 10곡이 따로 선정돼있다. 앞으로 음원화해 경희인과 동문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알릴 계획이다.

한편 개교 66주년 기념행사에서는 미래대학리포트가 공식발표됐다. 발표는 서울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유정완 학장이 맡았다. 유학장은 “미래리포트를 통해 경이로운 경희, 세계적인 경희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며 그 내용을 ‘대학에 다니는 이유’, ‘미래 대학이 추구해야 할 가치’ 등 총 14개의 키워드를 토대로 설명했다.

이번 미래대학리포트는 지난해 진행된 <대학의 미래와 핵심가치> 설문조사와 <미래리포트> 연구를

종합한 결과다. <관련기사 5면>

제2회 경희 웃는 사자상 시상도 진행됐다. 경희 웃는 사자상은 ‘경희정신을 널리 알린 학생’을 발굴하고자 지난해 처음 제정된 상이다. 총 32명이 지원한 가운데 학술연구, 사회공헌, 문화예술 부문에서 한명씩 수상자를 선정했다. ▲ 학술연구 부문 김한준(전자전파공학 2012) ▲ 사회공헌 부문 김광우(국제학 2011) ▲ 문화예술 부문 김물길(회화 2007) 양이 시상대에 올랐다. 김광우 교수는 “어릴 적 9·11테러를 보며 국제범죄와 빙곤이 왜 일어나는지 고민했다. 대학생활동안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모의유엔대회에 22번 참가했다”며 “그리고 이제 졸업을 앞둔 제게 이런 꿈을 더 크게 꿀 수 있도록 지원해준 우리학교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학주보 60돌, 미디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동형 인터넷 수요 증가, 학내 매체들 온라인 서비스 확장돼야

경희구성원 미디어 이용실태

이진우 기자 urusa93@knu.ac.kr

우리신문이 창간 60주년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경희구성원 미디어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지난 2013년 처음 관련 설문을 진행한 이후 수용자의 ‘온라인, 특히 모바일을 통한 정보파악’에 대한 요구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추세는 ‘현재 우리학교 소식

을 접할 때 가장 자주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의 응답에서 알 수 있다. 이동형(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인터넷이라고 답한 비율은 57.4%, 고정형(데스크톱PC) 인터넷은 31.3%로 나타났다. 종이매체와 같은 오프라인 매체라고 말한 독자는 10.6%에 불과했다. 2013년과 2014년 설문에서는 고정형 인터넷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47.2%와 42.4%로 이동형 인터넷이라고 답한 비율이 37.9%와 38.6%보다 높았다.

‘앞으로 우리학교 소식을 접할 때 가장 자주 활용하기 원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역시 이동형 인터넷이라고 답한 비율이 69.0%로 가장 높았고, 고정형 인터넷이 19.4%, 오프라인 매체 11.4%로 이어졌다. 지난 2013년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학교의 소식을 알 수 있게 되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동형 인터넷이라고 답한 비율이 44.6%였던 것과 비교할 때 그 비율

이 24.4%p 증가한 것이다. 이번 통계는 이동형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통한 접근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학교 밖의 주류미디어 소비형태는 이미 이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인희(언론정보학) 교수는 “뉴미디어시대에 돌입한 만큼 경희구성원이 정보에 골고루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3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페더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특별기고

아동의 ‘표현의 자유’ »11면

이택광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교수)



특집

독자 69%,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 신뢰받고 읽히는 매체 만들겠다

대학주보 혁신선언 중간점검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우리신문은 제1585호(2015.03.02)를 통해 '중간60주년을 맞아 100년의 틀을 새로 만들기 위한' 혁신을 선언한 바 있다. 그 방법으로 ▲디지털뉴스부문 강화 ▲대학주보 종이신문 발행주기 격주간 조정 ▲대학주보 매거진, 매거북 발행이라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매체의 주인은 결국 '독자'다. 독자들은 이런 변화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우리신문이 진행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고, 변화의 방향을 짚어봤다.

우리신문은 디지털뉴스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이메일 뉴스레터 주3회 발행, 소셜미디어(SNS) 강화, 콘텐츠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CMS강화를 세부안으로 제시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이런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대학주보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우리학교 구성원 387명에게 진행한 '대학주보 이용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학교 구성원은 대학주보를 종이신문보다 인터넷으로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387명 중 65.9%(255명)가 '데스크탑 혹은 노트북 PC를 통한 인터넷 대학주보'와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를 통한 인터넷 대학주보'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에서 주목할 점은 대학주보의 디지털뉴스부문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지난 3월 1일 이후 대학주보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273명 중 대학주보가 발송하는 이메일 뉴스레터 또는 대학주보가 운영하는 SNS 계정을 통해 기사를 접했다고 답한 비율은 94.5%(259명)에 달했다. 또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학주보를 이용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387명 중 과반수가 넘는 79.6%(308명)가 '온라인 매체'라고 답했다. 2013년에 동일한 질문자로 진행됐던 설문조사에서 '대학주보를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종이신문'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32.6%였고 이메일 뉴스레터 또는 SNS를 통해 기사를 접한다고 답한 비율은 21.3%이었



우리신문은 '늘 당신의 옆에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SNS 매체를 확대했다

다. 이번 설문 결과와 비교해보면 디지털뉴스부문에 대한 구성원의 수요가 대폭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학주보가 발행하는 이메일 뉴스레터에 대한 개선방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학주보 이메일 뉴스레터의 발송주기는 어느 정도인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과반수에 가까운 46.5%(180명)가 '주1회'에 답했기 때문이다. 독자들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뉴스레터의 주 3회 발행에 대해 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현 제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해부터 대학주보가 '모바일 퍼스트'를 지향하면서 무게를 둔 SNS운영 역시 페이스북 단일에서 매체를 확대했다. 지난 4월부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15초' 대학주보 영상과 캠퍼스 일상사진 등을 중심으로 볼거리로 제작하고 있다. 영상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정준(석사 3기)씨는 '뉴 미디어를 소비하고 구축해 나가는 데 매우 익숙한 20대를 주요 독자로 산정하고 있는 대학 신문이 '플랫폼의 다양화'로 신문의 활로를 고민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대학주보가 디지털뉴스부문의 강화를 위한 세부사항으로 제시한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강화' 계획은 최근 뉴욕타임즈, 벤조프드 등의 언론사들이 트래픽 감소에 대한 대응

책으로 CMS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경향에 따른 것이다. 어떤 기사가 독자들의 흥미를 끄는지와 같은 경향성을 파악하기 쉽고 기사 편집자 입장에서도 간편하게 편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대학주보의 현재 CMS은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해오기는 했지만 최신 독자 추세를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모바일 퍼스트'를 지향하는 대학주보도 올 해 안에 신규 CMS를 개발해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대학주보는 기존에 한 달에 한 번씩 발행되던 매거진을 폐간하고 단일 주제를 대상으로 심도있는 기획기사를 실을 '매거북'을 미래리포트, 도서관, 지역, 대학주보 편집일지 등의 소재를 토대로 준비하고 있다. 대학주보 백승철 편집장은 '매거북은 지면 사정상 본지에 실지 못했던 아이템을 중심으로 독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라며 "한 가지 아이템에 대해 더 심도 있고 깊은 취재를 통해 좀 더 수준 높은 기사를 쓸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대학주보는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39.2%(152명)로부터 선택돼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뽑혔다. 반면에 대학주보 기사를 3월 1일 이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답변 역시 29.2%(113명)였다. 더 신뢰받고, 더 많이 읽히는 신문을 향한 고민을 이어가겠다.

대학주보 60년, 혁신의 역사를



1955

5월 12일
신흥대학주보 창간

1960

3월 1일
'경희 대학주보'로 개칭,
같은해 6월 30일
'대학주보'로 변경

1979

1979년 3월 9일
지령 700호와 함께
가로쓰기 사용도입

1984

4월 2일
지령 800호,
전면 가로쓰기
적용

1992

5월 11일
지령 1000호 발행

2007

3월 5일
제1378호 베를리너판형으로 변경

2011

1월 5일
대학주보 매거진
제1호 발행

2011

2011년 5월 12일
창간 60주년

2015

2015년 5월 12일
창간 60주년

한 박자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khunews@khu.ac.kr

<http://media.khu.ac.kr/khunews>

보도

대학휘장 '생동감' 더했다 응용 시스템 8월 마무리

UI 기본시스템 개선

권윤지 기자 happitice2@khu.ac.kr

2011년 1차 개정된 대학 휘장 등 UI 기본 시스템이 2차 개정 막바지 작업 중이다. 아울러 1999년 제정된 'UI 관리규정' 역시 UI 기본 시스템이 확정됨에 따라 개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시스템은 대학휘장과 시그니처에 집중돼 있다. 2011년 1차 개정안을 바탕으로 진행된 개정 작업은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진다.

출판문화원 측은 "UI는 대학을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흔하게 쓰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구성원 모두 UI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만큼 UI를 보다 경희답게 만들고자 하는 의욕도 대단히 높다"며 2차 개정 작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대학휘장은 헛불과 목련, 사람의 이미지가 보다 자연스러워졌다. 특히 정적인 형태였던 헛불의 변화가 눈에 띈다. 휘장 중심부에 새겨진 영문 문구의 서체도 이탈릭체로 바꿨다.

교명이 불어지는 시그니처의 경우 기존에는 서체가 이미지로 고정돼, 다양한 활용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작업에서 상용서체를 채택, 단과대학이나 행정부서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두께 역시 볼륨감 있는 것으로 사용해 무게감과 명시성을 높인 점도 눈에 띈다.

5월 안으로 최종 발표 예정인 내용은 전체 UI 시스템 중 '기본시스템'이다. 기본시스템을 변형하여 기념품, 서식류 등 각종 물품에 활용하는 '응용시스템'은 오는 8월까지 개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출판문화원은 오는 2학기까지 'UI 전체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 작업 전에 만들어진 각종 제작물은 재고 소진 시까지 사용한다.

한편 지난 8일 우리신문 인터넷판을 통해 게재된 '개편 UI 기본시스템'과 관련해 구성원의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특히 '재학생'이라는 아이디의 사용자가 여러 질문을 건넸다. 이를 토대로 UI에 대해 구성원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을 출판문화원 측에 지난 14일 답을 구해 정리했다.

-지난 2011년 UI가 개편됐던 배경은 무엇인가?

"개교 직후 사용된 우리학교의 전통적인 심벌마크는 세계지도와 월계수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UN마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국제적 활동을 고려하여 전면적인 UI 개편이 진행됐다."

-타대학에서는 심벌마크와 시그니처를 염두에 구분하고 사용규정을 정晰히 명시하고 있으며, 대표컬러를 시스템화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이런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UI 체계의 세부사항을 공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시스템이 최종 결정돼야 한다. 그동안 이런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제시하지 못했다. 앞으로 UI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는 'UI 관리규정'이 최종 승인되고, UI 전체시스템까지 마련되면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을 공지하겠다."

-서체 역시 전용서체를 개발해 적용시키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대외 문서와 홍보물 제작에 있어 통일된 서체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이미지로 고정돼 사용에 제한이 많았던 점을 이번 최종개편과 함께 상용서체로 변경한 만큼 앞으로 지적한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전용서체를 개발하는 문제는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전용서체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개발 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했다. 문서와 관련해서는 응용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통일된 양식도 논의할 계획이다."

-2011년 1차 UI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학생증에서는 과거 UI가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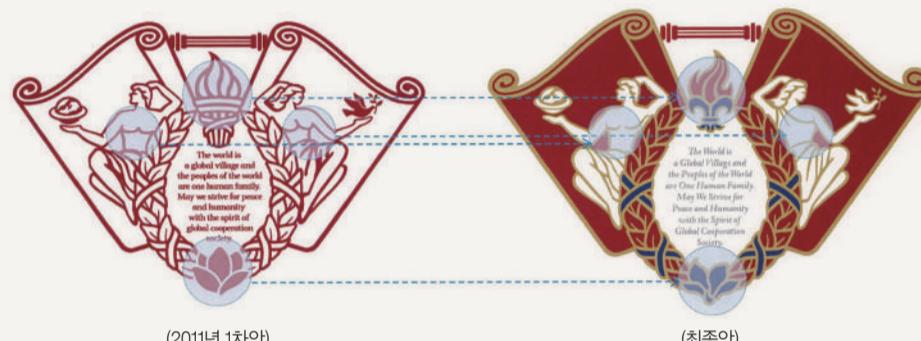
"학생증, 직원증, 명함 등을 응용시스템 개발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응용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학교 홈페이지(<http://www.khu.ac.kr>) 내 '경희정신-상징'에 미리 최종안을 업로드해둔 상태다. AI파일과 GIF 두 가지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다.

UI 개편과정

구분	기준	1차안	최종안
휘장(University Seal)	국내·외 본교를 공식 대표하는 식각적 상징 요소		 Full Color  One Color
교표(Symbol Mark)	본교의 역사적 전통과 권위를 표현하는 상징 요소		
워드마크(Word Mark)	본교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요소로, 휘장의 보조적 역할	 Kyung Hee University	 KHU KYUNG HEE UNIVERSITY
캐릭터마크(Character Mark)	본교 교육(목련)과 교수(웃는 사자)를 그리피화한 것으로, 휘장의 보조적 역할	 	  KYUNG HEE UNIVERSITY

대학 휘장 1차안과 최종안 세부비교



※ 휘장 중앙의 영문문구는 '지구공동사회를 기치로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자'는 우리대학의 의지를 담고 있다.

구분	변경사항
햇불	선도를 상징하는 햇불의 형태를 정적인 형태에서 동적인 형태로 변경
목련	경희의 교화인 목련의 형상과 더욱 유사한 형태로 변경
사람	인체의 균형에 맞추어 각각의 라인을 자연스럽게 가다듬고, 예술적인 형태로 변경
기타	휘장에 새겨진 글의 서체, 월계수 잎, 책의 형태를 주변 요소들과 더욱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변경

시그니처 1차안과 최종안 세부비교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최종안)

(2011년 1차안)

구분	기준	변경후
국문서체	'경희대학교' 서체는 폰트 타입이 아닌 이미지로 해당서체와 동일한 서체로 기타 글자를 작업할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	경희대학교 라이센스를 포함한 서체 사용으로 단과대학 및 부서명에서도 '경희대학교'와 동일한 서체 사용 가능
	다소 힘이 없고 모서리가 곡선처리가 되어 있어 주목성이 다소 떨어져 보임	힘과 두께감이 있는 서체로 변경
영문서체		국문 서체 변경 후 고딕체와 어울리는 명조 계열의 영문 폰트로 변경

미디어센터가 더 다양한 기획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미디어센터에서는 신문방송국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기획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학내 구성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뉴스메이커와 화제의 학내 현장 모습을 담아내는 포토뉴스가 게재되고 있습니다.

기획연재 신청을 기다립니다.
관심있는 필자분은 언제라도 미디어센터에서 연재기획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961-0094 <http://media.khu.ac.kr/>
031-201-3231



존경받는 교수의 모습은? '정신적 스승'

미래대학리포트 2015

방누리 기자 nurib423@knu.ac.kr

스승의 날이었던 지난 15일에 열린 개교 기념행사에서 '경희대학교 미래대학리포트 2015'가 발표됐다. 발표를 맡은 유정완(영어학) 교수는 "개교 65주년과 '경희백년 미래 메시지' 50주년을 맞아 '경이로운 경희', '세계적인 경희'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전체 구성원이 참여해 현재 우리대학의 모습은 어떠하고 미래 우리대학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알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미래대학리포트에서 도출된 정책을 앞으로 전 세계 유관 기관과 함께 고등교육 혁신운동으로 확산시켜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미래대학리포트를 총 15 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하여 소개했다.

특히 이 날이 스승의 날이었기에 교수와 학생 사이에 관한 문제가 더욱 눈에 띄었다. 더불어 교수와 학생 간 유대감 문제는 우리 신문에서도 이전에 언급된 바가 있어 이에 주목해 봤다. <교수·학생, 가깝지만 너무 먼 당신 2011.04.29. 1489호>에서 교수·학생 상호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59%는 교수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혁(식품영양학) 교수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수업 전에 학생 이름과 출석부 사진,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며 얼굴을 외운다"며 "좀 더 다가가기 위해 학생들을 만나면 '밥은 먹었니?'라고 물어본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예전에는 캠퍼스에 '스승과 제자'가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다면 요즘 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밖에 안 보인다"며 "서로의 목적을 위해서 대한다"고 아쉬워했다. 또한 그는 "교수님들 일이 워낙 많고 학생들도 취업이 어려워져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기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40여 년 전에도 (대학 속에 훈도가 있다)-교수, 학생 간의 대화를 넓히자 1978.03.27. 627호>와 같은 기사를 통해 볼 수 있다. 우리학교에서 강의한 지 올해로 39년째인 박신자(호텔경영학) 교수는 "한마디로 얘기하긴 힘들지만 예전엔 졸업 후에도 학생과 교류가 많았던 반면 요즘은 학생들이 대학을 스쳐 지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애교심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섭섭해 했다. "그래도 좋은 점은 학생들이 젊은이답게 거침없이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얘기도 솔직하고 어려움 없이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학교에서

37년째 강의 하는 이원(화학) 교수는 교수와 학생 사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학생들이 교수를 생각할 때 약간의 거리감을 갖고, 교수는 의해 학생들이 그러리라 생각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은 사실인데 내 경우는 심하게 느끼지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단적으로 차이를 얘기하기 애매하다"며 "예전에는 학생들이 교수를 어려워했지만 함께 교정을 거닐거나 애오에 가거나 대화하는 등 강의 외적인 접촉의 기회는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말했다. 외국 대학의 경우 교수와 학생의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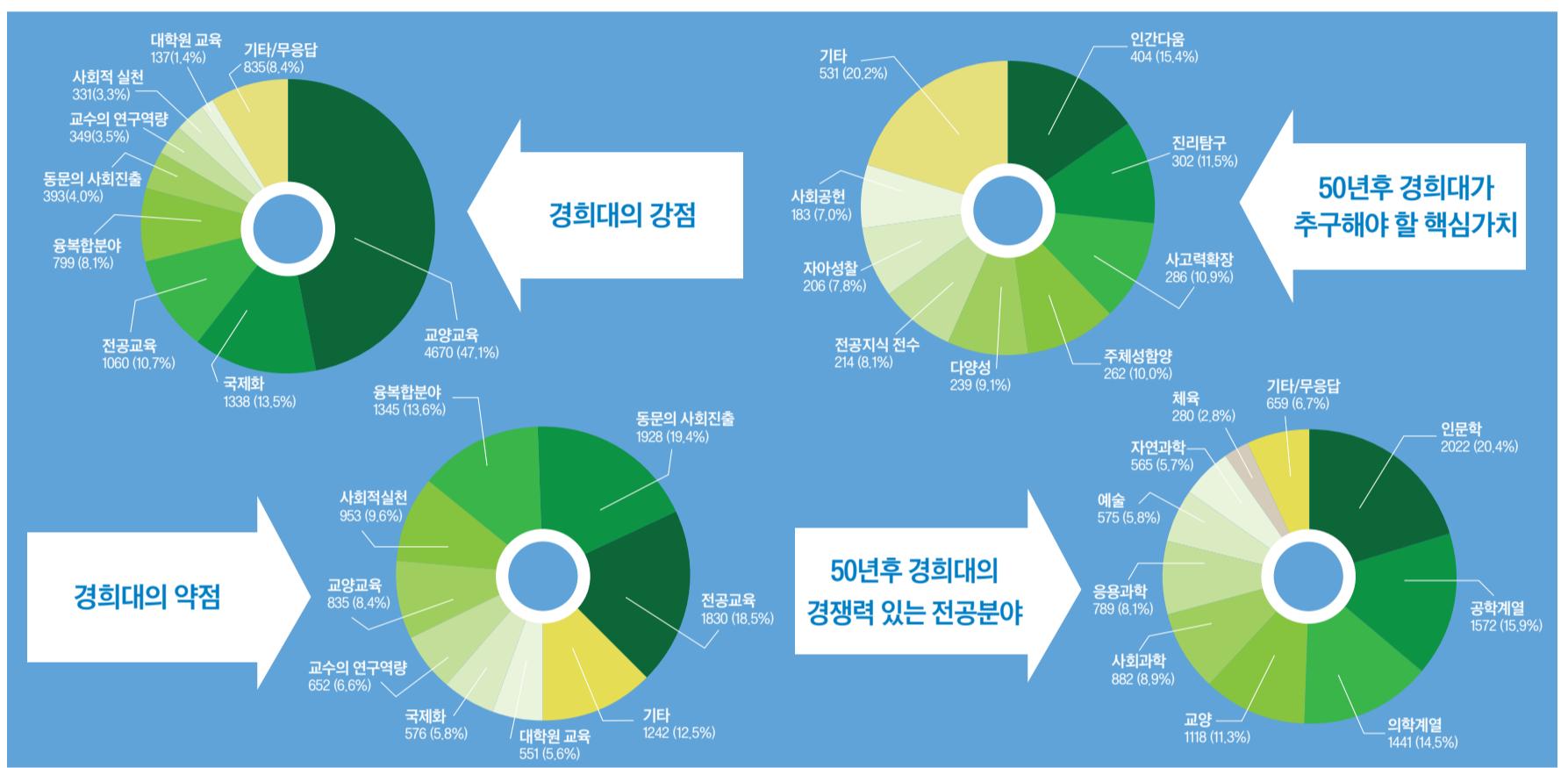
습은 어떠할까. 이에 대해 김현정(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미국 대학의 경우 친구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점이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도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교수가 아닌 이름을 부른다며 "교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보니까 거리감이 없고 교수 역시 권위적이지 않아 복장이 편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각각한 건 맞으나 좋은 점도 있다"며 "외국의 경우 교수와 동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떠자려는 사람들이 있어 약간 함부로 하는 게 있단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열세 번째 키워드인 경희대학교의 약점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동문의 사회진출' 문제도 우리 신문에서 이전에 언급된 바가 있다. <'취업 중심' 경계하지만 사회진출 대책도 절실 2014.09.14. 1574호>의 기사에서 "우리대학은 교육의 결과물로서의 취업과 진학을 애써 외면해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낮은 취업률,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성 일깨워 2013.09.07. 1548호>에서 "구성원에 경쟁력을 보태고 사회에는 신뢰를 심는 '교육 방식'에 대해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

라고 말하며 교육에서 취업까지 전반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번 발표에서 말하는 미래대학리포트의 최종 결론은 '대학이 바뀌어야 세계가 바뀐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혁신, 바람직한 스승상, 사회진출 프로그램 강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학생을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함이 제기됐다. 또한 학생들의 인식이 비교적 정확하다며 대학본부와 교수사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점 역시 이번 리포트가 주는 함의이기도 하다.

미래대학리포트 15가지 키워드 한눈에 보기		
1 내가 추구하는 가치	현재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행복(39.5%)
2 남북통일	예상하는 통일 한국의 지위는?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34%)
3 평생 직업	50년 후, 한 사람의 평생 갖는 직업의 개수?	2~3가지(63.7%)
4 한국 사회의 문제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와 50년 후 직면할 문제?	현재: 빈부격차(34.5%), 50년 후: 고령화(21.8%)
5 인류의 갈등요인	현재 인류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난제?	국가 간 부의 양극화(25.8%)
6 제3의 혁명	제3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떤 분야에서?	지식정보(49.9%)
7 평화 세계 시민 사회	50년 이내 평화로운 세계 시민 사회가 건설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92.2%)
8 존경받는 인간형	미래에 가장 존경받는 인간형?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사람(36.4%)
9 대학에 다니는 이유	현재 내가 대학교육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대비(34.3%) 학벌(21.8%) 학문탐구(18.9%)
10 미래대학 가치	미래 대학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자아성찰(19.1%) 진리탐구(14.1%)
11 미래대학 교수상	미래 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의 모습은?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신적 스승(26.5%)
12 "나는 경희인이이다"	현재 경희대학교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가?	매우 그렇다(8%) 그렇다(50%) 보통이다(32%)
13 경희대 강점	경희대학교의 강점은 어떤 부문에?	교양 교육(47.1%)
14 경희대 약점	경희대학교의 약점은 어떤 부문에?	동문의 사회 진출(19.4%)
15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	50년 후 경희대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	인간다움(15.4%)



2015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서울·국제)

1. 계절학기 주요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개설과목 확인	2015.05.01(금)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학점교류생	추첨기한 : 2015.05.27(수) 17:00 까지	학부여부 SMS 안내 문자 발송
수강신청기간	2015.06.11(목) 10:30 ~ 06.15(월)	'계절학기 시기별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홈페이지
폐강고지	2015.06.15(월) 12:00 (1차) 2015.06.19(금) 09:00 (2차)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등록금 납부기간	2015.06.16(화) ~ 06.18(목) 16시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폐강과목 수강생)	2015.06.16(화) ~ 06.17(수) 17시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수강기간	2015.06.22(일) ~ 07.13(월)	
성적발령(정말일)	2015.07.15(수) ~ 07.16(목)	

2. 수업안내			
기수	학점 교시 시간대	구 분	학점 교시 시간대
1학점 (1기)	교시 10:00~11:50 2교시 13:00~14:50	1학점	교시 10:00~11:50 2교시 13:00~14:50
2학점	교시 10:00~11:50 2교시 13:00~14:50	3학점	교시 09:00~11:45 2교시 13:00~15:45

※ 수업시간표 조회 : 2015.05.01(금)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
※ 강의계획서 조회 : 2015.05.01(금) 본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계획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 링크 클릭

3. 수강신청

가. 수강 가능 학점 : 최대 6학점
1) 학점교류, 국제교류처 어학연수, 단과대학 현장연수활동, 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과 동시에 수강 가능
2) 단과대학 학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수업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강좌 수강 불가
나. 수강신청 방법
1) 정규학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학점교류생 등)
2)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 계절학기 수강신청 배너 클릭 →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교과목 선택

4. 수강등록
가. 등록금액 : 1학점당 89,000원
나. 등록방법 :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학적 → 등록메뉴 중 [계절학기 등록금 인내] 칠판

2015학년도 1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안내

2015학년도 1학기 수시 강의평가는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인증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수시 평가는 평가문항을 별도로 두지 않으며, 수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방형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 수시 강의평가는 평가자의 인적사항이 교강사 조回事면에 표시되지 않으며, 교강사에 의해 수업진행 참고용으로만 활용됩니다.

1. 수시 강의평가는 진행기간 : 2015. 4. 6(월) 10:00 ~ 5. 29(금) 17:00 (8주)
2. 진행절차 : 종합전형시스템 → 수업/성적/상당 → 강의평가 → 수강과목 확인 후 강의평가(수시) 선택
3. 입학면접 설명
 - 가. '강의내역' : 선택한 강의내역을 확인
 - 나. '2평가문항' : 수업운영에 대한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방형으로 기술하고 '자장'을 클릭
 - 다. '3기내역확인' : 본인이 일자별로 올린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강사 확인여부 파악 가능
4. 평가내역 수정
 - 가. 수시 강의평가내용의 수정은 담당 교강사 확인 전에만 가능합니다.
 - 나. 평가면역에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클릭합니다.
 - 다. 담당교강사가 또 다시 작성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문 직접 수정하는 수신원으로 후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고 '정답'기를 클릭하여 이전화면으로 돌아갑니다.
5. 참조 및 유의사항
 - 가. 수시 강의평가내용의 수정은 담당 교강사 확인 전에만 가능합니다.
 - 나. 본 제도는 일정능력보유자에게 과목이수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학점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출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다. 교강사 확인 전에는 본인이 평가한 내역을 '삭제'할 수 있으나, 교강사 확인 후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경희대학교 교무처

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안내

2004~2007학년도 핵심교양 이수면제 규정에 의거 (구)핵심교양과목의 이수면제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04~2007학년 재학생현 학기 휴학생 신청 불가 중, 금학기 현재 면제 받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 않으며 이수하지 않은 자
2. 이수면제 대상과목(학점부여 없음)
 - 가. '대학영어'
 - 나. '사고와 표현', '보고서작성과 발표', '생명과학논문작성법'
3. 면제기준 및 자격
 - (※) 각자 제작한 이수면제 기준은 첨부 '핵심교양 이수면제 기준표' 참조
 - 가. 대학영어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 1) 개인영어능력증명서로 개별별 TOEFL, TOEIC, TEPS, G-TELP 정점점수 이상자
 - 2) 국제화 추진 TOEFL, TOEIC, TEPS 향성 입학자
 - 3) 영어권 국적 외국인 특례입학자
 - 4) Intensive Program(DEEP, LEAP, REACH)이수자
 - 5) 국제교류센터 주관 영어권 학점교류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
 - 나. 사고와 표현 영역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 1) 단계 : 득후감 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후 구술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 2단계 : 글쓰기 시험 80점 이상
4. 신청기간 : 2015. 06. 01(월) ~ 06. 12(금) 17:00까지
5. 신청장소 :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멀티미디어교육관 507호)
6.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2. 증빙서류 원본
7. 신청자 유의사항
 - 가. 2015-1학기 현재 상기과목을 수강 및 이수한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나. 본 제도는 일정능력보유자에게 과목이수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학점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출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 다. 교강사 확인 전에는 삭제할 수 있으나, 교강사 확인 후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 라.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영어 학점 인정 불가.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기획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단편적으로 받아들여선 안돼”

교수의회 간담회

김윤철 기자 kycxellos@knu.ac.kr
이승연 기자 leesy0317@knu.ac.kr
최승욱 기자 dotori14@knu.ac.kr

교수는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보직교수제를 통해 대학 전반을 운영하는 책임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수사회를 두고 ‘교원이 담당하는 강의가 타대학 대비 적다’, ‘논문표절 사건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연구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교수들이 생각하는 교수사회는 어떨까? 개교 66주년, 창간 60주년을 맞아 교수의회 구성원과의 간담회를 지난 13일 진행했다. 간담회의 시작은 대학주보 제1589호(2015.05.04) 사설에 대한 이야기였다. 우리 신문은 사설을 통해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저하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교수의회 측은 이를 두고 문제의 원인을 교수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입장 차는 이번 간담회가 마련된 배경이기도 했다.

-제1589호 사설이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교수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두 의장: 대학주보 사설만 본다면 우리학교 교수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만 단편적으로 봐선 안 된다. 우리 학교의 강의 수와 학점 수는 타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교원의 수가 타대학과 비슷하지만,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것이다.

임병노 사무총장: 좋은 연구성과가 나온다. 좋은 연구 환경에서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오면 연구 내용이 강의에 반영돼 강의의 질도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기 위해 연구가 우선돼야 한다.

-지난해 교수연대통신을 통해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의 과도한 강의수를 지적했다.

김 의장: 알고 있기로 예체능계열은 전임교원 수가 적다. 또한 후마니타스 칼리지도 전임교원 수가 적다. 학과별 전공에 대한



왼쪽부터 - 김홍두 의장 (정보전자신소재공학), 김태우 교무위원장 (동서의학대학원), 임병노 사무총장 (후마니타스칼리지)

서는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낮지 않다. 교양강좌 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 많아 전임교원 강의비율이 적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후마도 필요한 교수를 초빙해 오면 좋다.

임 사무총장: 후마 강의가 많은 것은 자랑해야 할 일이고 학생들에게도 좋은 것이다. 이전에도 학교 측에 더 전문적인 교수 초빙을 요청한 적이 있었지만 뽑아주지 않았다.

간담회는 교원의 연구, 교육관련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학교의 ‘재정’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교수의회는 지난 3월 15대 교수의회 의장단 인사말을 통해 8년간 제자리 수준인 연봉을 지적한 바 있었다.

-교원 연구 인센티브 제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인센티브 개편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김 의장: 현재 인센티브 재원 자체가 연구비를 수주한 교수가 받아온 것이다. 그러나 연구 논문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와 별개로 교육을 잘하는 교원에 대한 혜택은 너무 미미하다. 교수 업적 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보면 교육에 대한 질을 담보해 올리겠다는 고려가 없다. 연구에 대한

평가만 더 올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김태우 교무위원장: 학교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각 구성원-학생, 교수, 교직원-이 위기 극복을 위해 인내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세다.

학생들의 해외 연수 축소, 교수 연구 인센티브 축소, 각 대학 행정 단위별 예산삭감으로 구성원들이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재정 위기 상황을 상시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를 경계하고, 위기에 대한 대학본부 측의 책임 있는 소명을 요구한다.

-교원의 임금동결은 현재 학교의 재정문제와 직접적으로 닿아있다. 재정문제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김 의장: 예산심의위원회에 교수의회에서 파견하는 위원들이 들어가야 한다. 학교가 교수를 속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더 투명해야 한다. 돈이 적자적소에 잘 쓰여야 한다. 방만한 거버넌스를 축소할 필요도 있다. 우리학교처럼 부총장이 많은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행정부에서도 양쪽에 똑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로 만드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조직규모를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교원 연구 인센티브 제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인센티브 개편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김 의장: 현재 인센티브 재원 자체가 연구비를 수주한 교수가 받아온 것이다. 그

이 있다. 관련해서 학교 측과 이야기도 했다. 예를 들어 교수 연구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연구비 횡령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학교가 그 사람의 연구성과를 살펴보고, 연구 기여도가 크면 일시적으로 성과가 떨어지더라도 1년 내지 2년 동안 연구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은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렇게 된다면 연구비 횡령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비 횡령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학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길으로 지난해부터 이야기되고 있는 총장 선출제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다. 교수의회 측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가인의 윤곽이 나온 상태였다.

-교수의회에서 총장 선출제의 개정을 고민 중에 있다고 알고 있다. 방향이 궁금하다.

김 의장: 가인으로 구성원 대표로 구성된 총장선임위원회가 가능이 되어 교수 학생 동문 직원을 포함한 주천인단을 구성하고, 후보군이 만들어지면, 법인이 후보군 중에서 한 사람을 추천한다. 그 다음 전체 교수,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인준투표를 다시 한번 거친다. 인준이 되면 총장이 되고, 거부가 되면 다시 재단에서 후보를 내리고, 그게 두 번 거부되면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임하는 방안이다.

김 의장: 소수의 일부 교수가 돈을 쓰는 일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1. 캠퍸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담)			
행사명	모집부분	일시	장소
개인별 인턴 채용면접 및 모의면접	개인기획, 사업PM	5.2(목) 13: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 모의면접 희망자는 개인별 채용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거리모금 활동가	5.22(금) 12: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2. 특강		
행사명	일시	장소
영민이 같다 (취업현장/유학현장에 실험회)	5.19(화) 15:00~18:00	청운관 B117호
취업 준비를 위한 A to Z		
취업 영어로 효과적인 학습법		
유학 영어로 준비하는 활용		
1:1 맞춤형 컨설팅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경희대학교 재직교원 및 졸업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시작 시간 5분전까지 체크)

● 기타 사항은 취업지원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십시오.

● 채용설명회 관련 출석현장 학급: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배부

3. 1:1 취업진로지도 및 맞춤 컨설팅(취업상담)

● 대상: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자기소개서 및 이어서 작성법, 면접수준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를 진학 등

상황유형	컨설팅트	일시	장소	신청방법
개인 상담	분야별 컨설팅 4명 (각 컨설팅트별 10~20명 상당)	오전 9:00~11:30	교양관 103호	증한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담, 면접에서 사전 첨삭된 특별 일정,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집단 상담	이종교 교수 (취업진로 연구실) 강당 (교내/교외)	월 18:30~19:30 (매월 1~2회)	On Line (hansb@knu.ac.kr) Off Line (취업진로지원처)	상 시
On Line Off Line 상담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날 취소 불가 (상담 당일 전날까지만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론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분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확인하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pbj.kn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s>

연락처 02-951-0167~8, job@knu.ac.kr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처

[서울] 2015학년도 하계계절학기 개설강좌 현황

대학	이수구분	학수번호	강좌명	학점	강사명	교시	강의시간	강의실	연수구분	비고	교양-체육		교양-인문			
											GED1107-S01	생활영양·환경·체육·운동	3	이기태	1교시	09:00~11:45
경영대	전공기초	MGMT10001	책임경영	3	김영식	1교시	09:00~11:45	9:212								
	ACCT1001	회계개론	3	한지현	1교시	09:00~11:45	9:202									
	MGMT20001	경영통합론	3	김성현	1교시	09:00~11:45	9:203									
	MGMT200401	제조업관리	3	김경호	2교시	13:00~15:45	9:209									
	MGMT200201	마케팅원론	3	이종영	2교시	13:00~15:45	9:209									
	MGMT200501	조직행동론	3	김명호	2교시	13:00~15:45	9:210									
	ACCT102001	회계회계	3	김미화	1교시	09:00~11:45	9:210									
	ACCT104001	세계회계1	3	나현경	2교시	13:00~15:45	9:211									
	PHIL200101	불교고론	3	이은영	2교시	13:00~15:45	9:310									
	EINT300601	영어영문학	3	조재현	1교시	09:00~11:45	9:309									
	EINT300701	영어교양학	3	조숙자	1교시	09:00~11:45	9:309									
	HE1001-01	인문학과 사회학	3	이현경	2교시	13:00~15:45	9:402									

‘발표시점’→‘표절판정 시점’으로 적용

논문 표절 처벌 기준되는 ‘징계시효 기산점’ 해석 … 이사회 상정 여부 ‘이목’ 집중

관광대학원 교수, 논문 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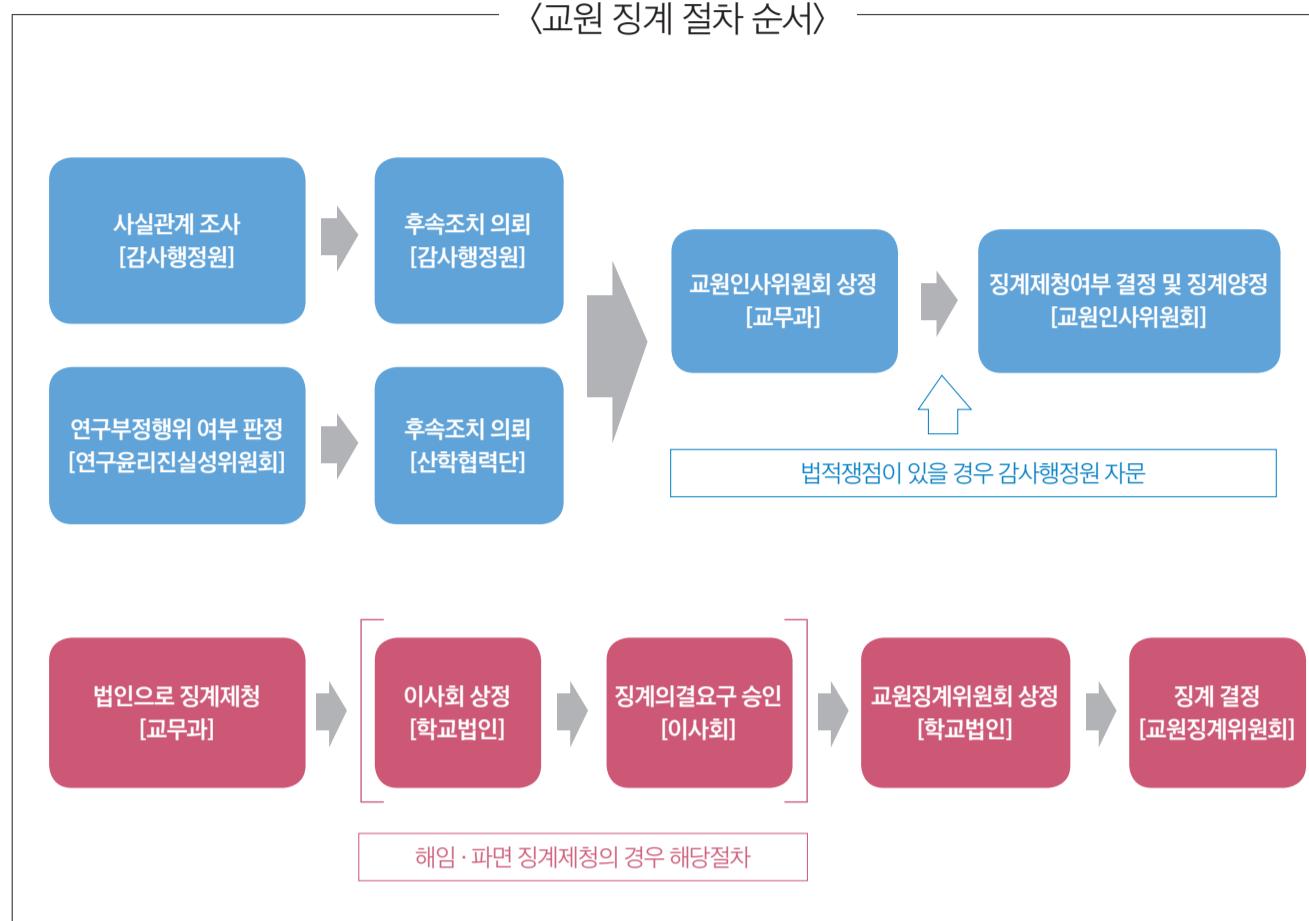
백승철 기자 schot357@khu.ac.kr

#. 지난 5월 12일 조선일보 주말 섹션 why에서는 우리학교 관광대학원 모 교수의 표절 관련 소식을 전했다. 기사의 핵심은 표절이라는 징계사유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사유 발생의 시점을 무엇으로 잡는가에 따라 사립학교 법의 ‘3년’ 시효에 의해 징계가 이뤄질 수도 불가할 수도 있다는 것에 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표절’이라는 대학사회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징계가 불가할 수 있다는 점에 의아할 수 있다. 우리신문은 관광대학원 모 교수의 표절 건을 계기로 우리대학의 교원 징계 추이와 절차 등을 살펴본다.(편집자)

우리학교의 교원 징계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감사행정원이나 옴부즈 팀, 성평등상담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교원윤리위원회 등에서 제보를 접수해, 이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친 후, 제보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사실’로 판단되면, 교원인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한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정관 제 5장 2조에 따르면, 교원인사위원회는 부총장(서울, 국제, 의무), 미래정책원장, 양 캠퍼스 교무처장·연구산학협력처장, 감사행정원장 등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지명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부교수 이상의 임명직 위원 1인, 교수의회에서 추천한 임명직 위원 2인을 포함한 총 12인으로 구성된다.

교원 징계, 사례 제보 및 접수→교원 인사위원회 징계 심의→법인 징계위원회 결정 3단계

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해, 제청 여부를 결정하고 징계수위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 법인의 징계위원회로 제청하게 된다.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제청한 것 중, 해임이나 파면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법인 이사회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징계위원회에서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올라온 징계안에 대한 징계여부와 징계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올해를 포함해, 지난 3년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가 확정된 징계건수는 총 15건이다. 징계종류를 살펴보면 경고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직이 5건, 해임이 2건, 파면과 감봉은 1건씩이다. 현재 4건의 징계안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다. 징계사유는 연구윤리 위반, 논문표절, 데이터 조작, 연구비 부당 사용 등이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A 관계자는 “징계건수가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은 교수사회에 대해 전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예전이면 관행으로 넘어가고 했던 문제도 요즘은 이를 엄하게 처벌하는 분위기기 때문에 자연히 징계건 수도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3년 징계건수 15건 과거 대비 증가 추세

논문의 표절여부를 판별하는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는 연구산학협력처 산학협력단이 주관부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총장의 직속기구로, 주로 연구윤리 위반 여부와 논문 표절 여부를 판정한다.

특정 논문에 대해 표절 의심이 제보되면 외부위원이 포함된 조사단이 꾸려져 예비 조사와 본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대학본부 한 관계자는 “표절로 최종 판정이 나면 연구실적을 삭제하고 징계심의를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게 된다”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다른 사안의 ‘집증팔구’는 표절건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우리대학의 징계여부 외부에서도 관심 대상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로 판정받아도, 정작 관련 처벌 규정이 모호해 실제 징계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지난 3월 시행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의 경우에만 징계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점’이란 표현이 ‘논문이 발표한 시점’을 말하는 것인지, ‘논문이 표절로 판정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조선일보에서 언급된 바 있는, 최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관광대학원 모 교수의 논문 표절 건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논문이 표절로 판정을 받은 날’로 적용해 징계위원회에 제청을 요구한 상태다.

이전까지는 ‘표절’로 판별된 논문에 대한 징계시효의 기산점 적용을 논문이 발표된 시점으로 해석해왔다. 하지만 논문 표절의 경우, 발표한 지 3년 이내에 표절여부가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논문의 발표일로 잡는 것은 사실상 논문 표절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실제로 지금까지 논문 표절로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사안 중 거의 대부분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에 맞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

최근 학계에서 연구윤리와 표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이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편찬한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그동안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시효’는 그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었다. ‘검증시효’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그러나 지난 2011년 개정된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에는 시효에 관한 규정이 삭제돼,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시점과 관계없이 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

징계절차 진행 중인 교원 사표 수리 불가

만약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논문이 표절로 판정을 받은 날’로 적용한다면, 앞으로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하나의 선례가 돼, 앞으로 논문 표절 건에 대한 징계 여부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광대학원 모 교수의 논문 표절 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우리학교는 물론 외부로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사표를 내면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를 받지 않고 당사자가 학교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징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거나 연금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우리학교 모 교수의 경우, 지난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중,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했으나, 학교측은 사표 수리를 거부했고, 징계위원회에서 당사자에 대해 파면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하고 항소해 2심이 진행되던 중 지난 4월, 결국 원고가 2심을 포기해 원심이 확정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파면 처분이 유력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낸 사표를 거부한 학교측의 결정은 유효하다’며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관계자는 “당시 교육부에서도 이 판례를 사립학교법 개정에 활용하겠다고 할 만큼 중요한 선례가 됐다”며 “앞으로 대학가에서도 비슷한 사례의 경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2015학년도 졸업앨범 출영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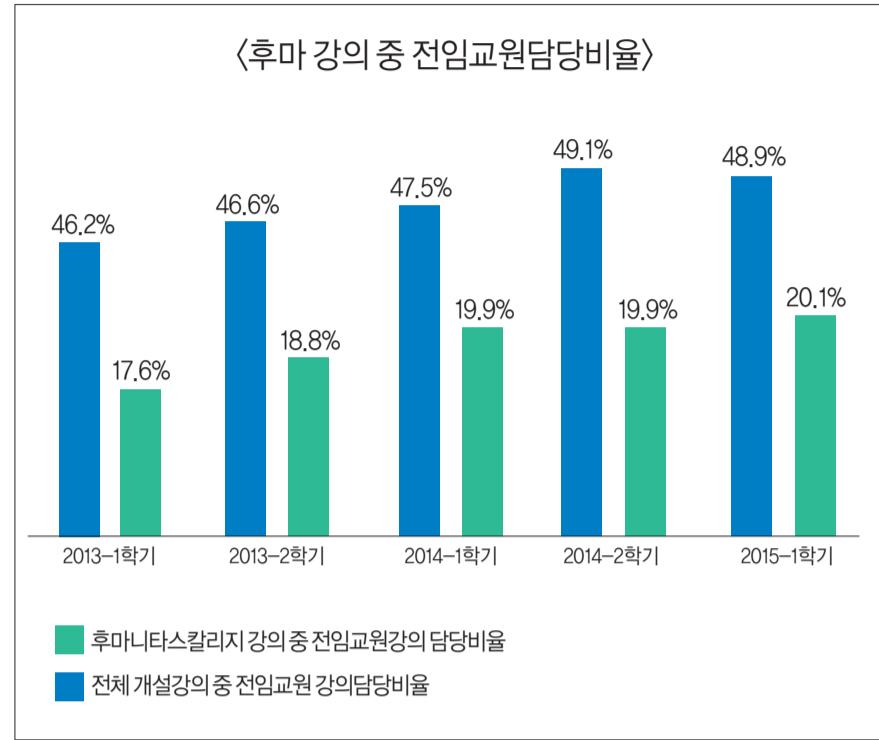
일자시간	5월 21일(목)	5월 22일(금)
09:30	국제학과	스포츠지도학과
10:00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원자력공학과
10:30	식품생명공학과 러시아어학과	응용우주과
11:00	화학공학과 응용물리학과	한국어학과
11:30	스페인어학과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전자전파공학과 컴퓨터공학과
13:00	프랑스어학과 건축공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스포츠의학과
13:30	조경디자인학과 원생명공학과	연극영화과 시각디자인학과
14:00	체육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응용수학과
14:30	응용화학과 중국어학과	생체의공학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15:00	태권도학과 의류디자인학과	포스터모델영역학과 골프산업학과
15:30	한방재료공학과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건축학 디자일콘텐츠학과
16:00	일본어학과	유전공학과

[국제] 2015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강좌 현황

대학	이수구분	학수번호	강좌명	학점	강사명	교시	강의시간	강의실	언어분석	비고	교양-기초과	GEB1101-G03	글쓰기1	추후 공지	2교시	13:00~15:45	월206	
국제대학	전공선택	IS3303-01	Global Business Strategy	3	황유종	2교시	13:00~15:45	국202	영어강의			GEB1102-G01	글쓰기2	추후 공지	1교시	09:00~11:45	월208	
		AMTH1001-01	미분방정식	3	박재영	1교시	09:00~11:45	멀304				GEB1102-G02	글쓰기2	추후 공지	2교시	13:00~15:45	월207	
		AMTH1001-02	미분방정식	3	김경수	2교시	13:00~15:45	전227				GEB1102-G03	글쓰기2	추후 공지	2교시	13:00~15:45	월207	
		AMTH1002-01	미분적분학1	3	김현경	2교시	09:00~11:45	전101				GEB1201-G01	영어1	Roger Thompson	1교시	09:00~11:45	월103	
		AMTH1002-02	미분적분학1	3	박경민	1교시	09:00~11:45	전102				GEB1201-G02	영어1	이혜연			영어강의	
		AMTH1002-03	미분적분학1	3	송주희	2교시	09:00~11:45	전226				GEB1202-G01	영어2	Anesley Burne	1교시	09:00~11:45	월409	
		AMTH1002-04	미분적분학1	3	김현수	2교시	13:00~15:45	전227				GEB1202-G02	영어2	John Johnson	1교시	09:00~11:45	월410	
		AMTH1003-01	미분적분학2	3	신이숙	1교시	09:00~11:45	전226				GEB1202-G03	영어2	Andrew Stewart	2교시	13:00~15:45	월409	
		AMTH1003-02	미분적분학2	3	명재득	1교시	09:00~11:45	전102				GEB1202-G04	영어2	Cynthia Yoo	2교시	13:00~15:45	월410	
		AMTH1003-03	미분적분학2	3	박정주	2교시	13:00~15:45	전102				GED1115-G01	운동과체중관리	3	김경애	2교시	13:00~15:45	월210
		AMTH1004-01	선형대수	3	최현리	1교시	09:00~11:45	전103				GED1211-G01	습의치료	3	김종성	2교시	13:00~15:45	월112
		AMTH1004-02	선형대수	3	남궁윤미	2교시	13:00~15:45	전103				GED1325-G01	인문학과문화콘텐츠	3	김기국	1교시	09:00~11:45	월112
		APHY1002-01	물리학및실험1(이론)	3	김신경	1교시	09:00~10:50	멀407				GED1327-G01	천연원물광물학및분석	3	최승희	2교시	13:00~15:45	월312
		APHY1002-02	물리학및실험1(이론)	3	김신경	2교시	11:00~12:50	멀407				GED1408-G01	공학분야경쟁	3	권문택	2교시	13:00~15:45	월102
		APHY1002-03	물리학및실험1(이론)	3	김신경	2교시	11:00~12:50	멀406				GED1425-G01	스포츠와경쟁	3	양길	1교시	09:00~11:45	월210
		APHY1002-04	물리학및실험1(이론)	3	김신경	2교시	11:00~12:50	멀407				GED1524-G01	공학과윤리	3	예슬라	1교시	09:00~11:45	월102
		APHY1002-05	물리학및실험1(이론)	3	김신경	2교시	11:00~12:50	멀407				GED1609-G01	문화유산과역사지리	3	이명희	2교시	13:00~15:45	월302
		APHY1002-06	물리학및실험1(이론)	3	김신경	2												

보도

후마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20.1% 강의수·전임교원수 복합적 원인



마 유정완 학장은 “우리학교 교양교육의 특성상 수강생이 소규모로 개설되는 강의가 많다”며 “수치로 보이는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학은 후마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저조한 원인을 ‘강의수’로 규정해 조정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전임교원의 수’ 자체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4학년도 기준 후마 소속 교원중 전임교원 비율이 22.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같은 기간 전체교원 중 전임교원의 비율인 41.6%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후마 A관계자는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높이기 위해, 배분이수교과에 대해서는 타 단과대학 전임교원 분들이 강의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무작정 타 단과대학 교수의 강의를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학장은 “후마에서는 비전임교원 중 일부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해달라고 대학본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대학본부가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반드시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전임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연구에 힘쓸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인력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학교가 강조하는 후마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고민해 볼 때다.

후마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지난 2013학년도 1학기 17.6%에서 2014학년도 1학기 19.9%로 늘어났다. 이번 학기에 20.1%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체강의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과 차이는 2013학년도 28.6%p에서 2014학년도 1학기 28.8%p로 오히려 벌어졌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전체’ 강의담당비율도 낮게 나온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후마를 제외한 우리학교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60.6%로, 전체 비율대비 11.7%p 높다. 다른 경쟁대학과의 격차 역시 줄어든다. 교양교육 전담기관의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중앙대, 연세대와 비교해보면, 전체강의를 대상으로 했을 때 두 대학과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격차는 10.8%, 5.5%이다. 반면 교양강의를 제외하면 4.3%, 1.8%p로 차이가 줄어든다. 서울캠퍼스 후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입니다!” 우리학교의 ‘목소리’, 대표전화 통신실

대표전화 상담원들의 이야기

최병현 기자 chbh1027@khu.ac.kr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입니다”

지난 8일 ‘서울캠퍼스 대표전화(02-961-0114) 통신실’을 찾았다. 전화가 쉴 새 없이 밀려들었다. 우리학교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각 부서로 전화를 연결하는 이곳은 본관 5층 가장 구석에 위치해 있다. 위협적인 ‘접근금지’ 글귀가 적혀있어 직접찾는 사람은 드문 그곳에서, 항상 상냥한 목소리로 안내하고 있는 정순희, 이상선 상담원을 만났다.

정순희 상담원은 1995년부터, 이성선 상담원은 2005년부터 우리학교 관리과 통신실에서 근무했다. 올해로 각각 근속 20년차, 10년차다. 긴 시간 일해온 이들은 가장 바쁜 시기로 입학시즌과 원서접수 시즌으로 꼽았다. 정 상담원은 “전화가 뜨는 점심시간대에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입시철에만 인력이 조금 부족하고, 평상시엔 노하우로 충분히 일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중간중간 전화는 계속 걸려왔다. 밀려드는 전화에 대해서는 두 상담원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상희는 “전화에 대해서는 두 상담원이 더 충실히 대처하는 바탕이다. 하지만 ‘감정노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 상담원은 “질문에 시원하게 답을 못할 때, 가끔은 심한말을 하시는 분도 있다”며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목소리로만 소통하다 보니 그는 것 같다. 전화를 끊고 눈물 흘릴 때도 적지 않지만, 되도록 빨리 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보’를 파악하는 일도 쉽지 않다. 이 상담원은 교환업무를 “정보와의 싸움”이라며 “학교 행사와 같은 정보를 많이 알아야 한다. 학교 홈페이지와 교내 현수막을 꼼꼼히 살펴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문의전화가 올 때 직접 포털사이트에 검색해 답변을 해야 하기도 한 상황이다. 체계적인 정보공유가 아쉬운 지점이다.

어려운 일은 많지만, 이들은 “자부심을 느낀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정 상담원은 “학생들처럼 직원도 우리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며 “경희대 다닙니다”라고 말할 때 그 소속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전했다.

인터뷰 종반중간 전화는 계속 걸려왔다. 밀려드는 전화에 대해서는 두 상담원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두 “괜찮다”는 답을 반복했다. 하지만 ‘감정노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 상담원은 “질문에 시원하게 답을 못할 때, 가끔은 심한말을 하시는 분도 있다”며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목소리로만 소통하다 보니 그는 것 같다. 전화를 끊고 눈물 흘릴 때도 적지 않지만, 되도록 빨리 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보’를 파악하는 일도 쉽지 않다. 이 상담원은 교환업무를 “정보와의 싸움”이라며 “학교 행사와 같은 정보를 많이 알아야 한다. 학교 홈페이지와 교내 현수막을 꼼꼼히 살펴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문의전화가 올 때 직접 포털사이트에 검색해 답변을 해야 하기도 한 상황이다. 체계적인 정보공유가 아쉬운 지점이다.

어려운 일은 많지만, 이들은 “자부심을 느낀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정 상담원은 “학생들처럼 직원도 우리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며 “경희대 다닙니다”라고 말할 때 그 소속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전했다.

인터뷰 종반중간 전화는 계속 걸려왔다. 밀려드는 전화에 대해서는 두 상담원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자부심은 두 상담원이 더 충실히 대처하는 바탕이다. 정상희는 “전화를 끊고나서 “친절하게 받았는지 걱정된다. 더 친절하게 할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할 만큼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이런 이들의 노력을 배려하는 전화벨이 울리길 기대하며, 손에 꼽힐 만큼 자주 연락하는 ‘대학주보’부터 “더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

일하게 하는 바탕이다. 정 상담원은 “미국 애틀란타에서 우리학교로 교환학생 오려는 학생이 전화를 걸어왔었다”며 일화를 이야기했다. “학교 주변에 방이 필요해서 부동산 정보를 물었는데 준비된 정보가 없었다. 지금은 알 수 없고 최근 후에 정보를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한 후, 퇴근길에 직접 주변 부동산을 돌며 정보를 구해 전했다.”

두 상담원이 구성원에게 바라는 점은 소박했다. 정 상담원은 “학생들이 학식, 복전, 취진처와 같은 줄임말을 사용해 당황했다.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내하기가 더 좋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 상담원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며 “서로 조금만 존중하고 친절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매번 목소리로만 만나는 두 상담원은 전화를 끊고나서 “친절하게 받았는지 걱정된다. 더 친절하게 할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할 만큼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이런 이들의 노력을 배려하는 전화벨이 울리길 기대하며, 손에 꼽힐 만큼 자주 연락하는 ‘대학주보’부터 “더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



한 사람 더 들어가기도 좁은 공간에서 두 상담원은 10년째 함께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성선, 정순희, 상담원)

2015학년도 후기 언론정보대학원 신입생 모집

(석사과정) ● 모집학과 및 인원			
구분	학과	전공	모집인원
언론학석사 과정 (신입/편입)	저널리즘	신문·잡지 방송 광고 홍보	17명
	전략커뮤니케이션	스피치·토론 정치·마케팅 언론·저작권 대중예술 디지털영상	00명
●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장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5. 5. 26(화)~6. 3(수)	방문접수/우편접수	
전형일(면접)	2015. 6. 13(토)	본교 청운관 613호	
합격자 발표	2015. 6. 29(월)	언론정보대학원 홈페이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료:50,000원)		
(스피치·소통 전문과정)			
● 모집대상 및 인원			
모집대상		모집인원	
• 경영학, 고위공직자 및 기업의 임원·정책분야 종사자 • 스피치·설득능력이 필요한 기관·종사자·스피치와 대화·설득관련 교육자 • 소통 능력 향상을 원하는 일반인	00명		
●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장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5. 6. 26(금)까지	방문접수/우편접수	
합격자 발표	2015. 6. 30(화)	언론정보대학원 홈페이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전형료:40,000원)		
● 교육장소	경희대 총동문회관 5층(종로구 권동동 소재, 안국역 도보 7분) 또는 경희대 서울캠퍼스		
※ 모집인원에 따라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입학문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언론정보대학원 행정실 전화 또는 홈페이지 참조			
전화: 02-961-0560~1(청운관 6층)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청운관 606호			
이메일: hsb2520@knu.ac.kr 웹사이트: http://knu.communication.ac.kr			

2015학년도 후기 평화복지대학원 신입생 모집

평화복지대학원

The Graduate Institute of Peace Studies

● UNESCO 평화교육상 수상 기관

● 전원 장학금(학비, 숙식비, 교재비) 전액 지원

● 전 과목 영어로 강의

● 해외대학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

● 해외 단기 인턴십 재정 지원

● 대학원 독립 캠퍼스

■ 모집과정 : 석사과정 (전액장학)

■ 모집전공 : 국제평화 / 아태지역 / 대안정치거버넌스

■ 전형방법 : 논술 및 면접

■ 원서접수기간 : 2015년 5월 11일(월) ~ 5월 20일(수)

■ 온라인 원서접수 : http://gip.knu.ac.kr

•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전형기간 : 2015년 5월 27일(수) ~ 6월 3일(수)

■ 문의처

• 이메일 gip@knu.ac.kr

• 문의전화 031-570-7012~6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2015학년도 후기 국제대학원 신입생 모집

2015학년도 후기 국제대학원 신입생 모집

1. 모집분야 : 국제통상협력학과 / 국제개발협력학과 / 국제경영학과

2. 모집인원 :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0명

3. 지원자격 : 석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박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석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4. 전형방법

국내기준 지원자(석사) : 서류(40%), 영어인터뷰(40%), 영어작문서(20%)

해외기준 지원자 및 박사과정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터뷰(60%)

※ 해외기준 지원자(석사)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하며, 일자는 별도 통지

5. 전형일정

서류접수 : 2015년 5월 19일(화) ~ 6월 5일(금)

국내 거주자 인터뷰 및 영어작문서 : 2015년 6월 13일(토) 오후 12시 30분

해외 거주자 인터뷰 : 2015년 6월 8일(월) ~ 6월 12일(금)

6. 합격자발표 : 2015년 6월 중

7. 제출서류

• 입학원서 (국제대학원 홈페이지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양식 포함)

•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평균, 평점 및 백분위 성적 기재)

• 충전서 2인 각 1부씩 (국문/영문, 자음/양음)

• 출입(경증증명서) 1부 (학위증명서번호 기재)

• 디иплом(학위증명서) 1부 (학위증명서번호 기재)

• 전형료 : 70,000원 (E-mail 및 우편접수 시 온라인 일금)

※ 입금방법 : 하나은행 906-910002-76604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위기의 대학원 도약의 계기로 삼자

#. 대학주보는 이번 학기에 ‘위기의 대학원, 도약의 계기로 삼자’ 연재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우리학교 대학원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총5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학교 대학원이 안고 있는 다양하고 다단한 문제들에 대해 차근차근 고민해보는 동시에, 옆 나라 일본의 대학원은 어떤 모습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보며 우리의 현실과 비교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다.

연재순서

- ① 총론-대학원의 위기
 - ② 장학제도
 - ③ 연구지원 시스템
 - ④ 외국인 학생선발 시스템
 - ⑤ 대학원 조직문화

‘유학생능력’ 선별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필요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우리학교 일반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재적현황이 지난 2011년 571명에서 2014년
에는 787명으로 3년 동안 37.8%가 늘어났
다. 이는 동기간 3,274명에서 3,636명으로
약 11.0% 늘어난 학부 전체 재적학생 수를
감안할 때 커다란 상승폭이라고 할 수 있
다. 더불어 이러한 추세라면 일반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
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 외국인 유학생
은 ‘소수’가 아닌, 대학원을 이루는 주요 구
성원이 됐다. 하지만 이런 외연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는 여러 문제들이 산적
해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역시 외국인 유학생들의 부족한 한국어 실
력에서 비롯되는 ‘수업의 질적 저하’ 문제
다.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대학원보
가 진행한 ‘외국인 유학생 과정 실태’



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내국인 학생 응답자 중 58.2%는 ‘현 외국인원생 유치 및 관리 시스템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나타났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많은 수의 학생들 (36.8%)이 ‘수업의 질 저하’를 꼽았다. 대학원에서조차, 학부과정에서 왕왕 지적되곤 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여력이 떨어져 내국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학원 조차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역 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총학 생회의 박진홍 회장은 “대학원 수업은 특 성상 학생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발제와 발 표를 진행하며 서로서로 배워나가는 경향 이 있기에 외국인 유학생의 역량이 이 과정 에 긴밀히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수업 분위 기를 쉽게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일부 외국인 유학생들은 발표 준비를 할 능력이 없어 내국인 학생들이 이 유학생을 위해 팀을 짜서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다” 며 실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의 학력 저하 문제는 왜 발생하는가? 그것은 다분히 우리나라의 제도적 현실과 연관돼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5항에 따르면, 국내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정원 외’ 인원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는 대학마다 규정돼있는 학생 정원수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래 이 규정은 국내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율을 높여 국제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이 규정은 국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프레임을 ‘소수정예의 고급인력’에서 ‘제한 없는 등록금 납부자’로 이동시킨 한 배경이 됐다.

하지만 해외 대학들은 우리의 사례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가령 일본의 사례를 보자. 일본 주요 대학의 대학원의 경우에는 외국인을 위한 별도의 특별전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입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일본인 학생들과 동일한 전형에 응시해야만 한다. 츠쿠바대학교 국제교류협력

부의 사케 타카기 팀장은 “입시는 외국인·내국인에 대한 구분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같은 것을 배우기 위한 조건은 항상 동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에서 유학 중인 유학생 유채연(종합문화 연구과 박사과정)양은 “일본 주요 대학의 대학원 중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특별한 입시제도가 있다 는 것은 들어본 바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을 위한 별도의
전형이 없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인 학생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경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를 배려하기 위해 ‘별도의 입시전형’ 대신 다른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연구생 제도’가 그것이다. 연구생 제도는,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교수의 양해를 구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학부 수업이나 대학원 수업을 청강하며 수업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고, 이 기간에 담당 교수로부터 별도의 세미나 교육을 받으며 논문을 지도받는 제도다. 연구생들에게는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정규 대학원생이 될 수 있는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지며, 이 시험에 합격할 경우 정규 대학원생이 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연구생 제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학원 입학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원 입시를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연구생 제도가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다.

이 연구생 제도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을 갖고 있다. 일차적으로 이 제도는 정규 대학원의 수업을 최소한의 검증된 학생들에게만 열어둠으로써 수업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제도는 외국인 학생의 적응을 돋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일본 대학의 수업과정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적응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유 양은 “본인의 전공인 사회학의 경우, 일본의 사회학과 한국 사회학의 경향이 사뭇 다르다”며 “일본에서 사회학 수업을 들어보면서, 일본의 사회학에 대해 익숙해 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비단 외국인 입시제도로서 뿐만이 아니라, 융합학문을 촉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주지하듯 대학원에서 다루는 학문은 그 폭이 좁고 깊이가 상당하다. 때문에 학부과정과 다른 전공을 수학하려는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원 입시를 통과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입학을 한다고 한들 학부

과정부터 차근차근 밟아온 동료들에 비해 연구성과를 내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들이 연구생 제도를 활용할 경우 해당 학문에 대한 이해를 기초 수준부터 차분히 쌓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기준 전공 지식과의 학문적 융합 아이디어를 획득하는 것도 가능해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유 양은 “이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공을 바꿔 진학하는 일본인 학생들도 연구생제도를 이용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연구생제도는 융합학문을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이 밖에도 연구생 제도는 본 학위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생제도를 통해서 본 학위과정에 진입한 학생의 경우, 연구생 시절 지도교수와 교류하면서 미리 연구테마를 정해놨기 때문에 본 수업연한 내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석사 과정 중 연구생제도를 겪은 사람들 이 수업연한인 2년 안에 석사 통과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유 양의 설명이다.

일본의 연구생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의 역량 미달과 이로 인한 수업의 질적 저하’라는 총체적 문제점에 직면한 우리나라 대학원에게 하나의 커다란 대안적 시각을 갖게 해 줄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역량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은, 애초에 ‘제대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이들을 거르지 못하는’ 입시선발과정의 문제를 방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 무용학부 발전기금(장학금) 모금 바자회

아름다운 만남, 나눔
그리고 행복 찾기

2015

일시 : 5.21(목)-5.22(금) 09:30-17:30

장소 : 경희대학교 청운관 앞마당(대성교 주변)

주관 : 무용학부(교수, 학생, 직원)

참석대상자 : 경희가족, 일반인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School of Dance, Kyung Hee University
Contact: 02-961-0539, 0541/dance@khu.ac.kr

2015 온라인 성인지 향상 이벤트

대상 :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재학생

기간 : 2015. 5. 1(금)~2015. 5. 31(일)

참여방법

1. 경희대학교 성평등상담실 홈페이지 접속
(<http://web.khu.ac.kr/~happyyou/>)
2. ① 홈페이지 왼쪽 하단의 폭력예방 온라인 교육
1, 2, 3 수강(4는 수강 할 필요없음)
②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가정폭력 아는 만큼 멈출 수 있어요' 수강
3. 성평등 퀴즈 답안 작성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4. 성평등 상담실에 이메일로 제출
happyyou@khu.ac.kr

결과발표 : 2015.6.4(목)

경품 : 쌤소나이트 백팩(7명), 스타벅스 카드 만원(31명)

서울캠퍼스 성평등상담실

KYUNG HEE UNIVERSITY

CLOTHING & TEXTILES

35th GRADUATE FASHION SHOW

2015.5.22 4pm / 7 pm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

A stylized map of Seoul, Korea, composed of various black and white photographs. The map includes landmarks like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Gwanghwamun Square, and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Overlaid on the map is the text "#SEOUL" in large, bold, blue letters.

Design by @JEONGNIGHT

아름다운 동행 2015

● 동행장학금

장학수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장학금 비수혜 학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장학생이 장학수혜자인 동시에 후원자가 되는 제도입니다.

● 모금기간 : 2014.12.1 ~ 2015.5.29.

● 기부방법

- 약정서 작성 : 하단의 기부금 약정서를 오려서 또는 장학팀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기부약정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 약정서 제출 : 캠퍼스별 장학팀 방문 및 이메일 송부
- 기부금 납부 : 무통장입금 및 CMS(자동이체) ※기부금액 : 제한없음

동 행 장 학 기 부 약 정 서

■ 기부자 계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구 분	<input type="checkbox"/> 등 문 <input type="checkbox"/> 재학생	대학(학과)/대학원(전공) :	입학연도 :
우편문 수령처	[지역주소]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 날짜별액

■ 월별액	<input type="checkbox"/> 원납 <input type="checkbox"/> 분납	2015년 월 일
■ 날짜별액	<input type="checkbox"/> 원납 <input type="checkbox"/> 분납	2015년 월 일부터 ~ 2015년 월 일까지 (개월)
무통장입금		[시행기준] □마나은행 278-810023-99605 [국제기준] □마나은행 428-141982-19304
CMIS		[온행] [개좌번호]
(자동이체)		[예금주] [예금주 주민번호] [공체금액] 매월 원

■ 학생정보

■ 서명	<input type="checkbox"/> 서운캠퍼스 <input type="checkbox"/> 국제캠퍼스
■ 기금후속	<input type="checkbox"/> 지정발행기금 (기금사용목 : 동행장학금)
■ 기획연계금	원정 () 주천인 ()

■ 본인외

경희대학교	서운C Tel 02) 961-0045-8 Fax 02) 961-0179 e-mail: janghak@khu.ac.kr
경희대학교	서운C Tel 031) 201-3051-9 Fax 031) 204-8107 e-mail: scholarship@khu.ac.kr

위와 같이 기부 약정합니다.

본인은 상기내용에 대한 기부자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

2015년 월 일 기부자 :

서명 (인)

경희대학교 총장 귀하

경희대학교 학생지원처

시선

친구같은 장애학생 도우미 더 늘어나길 기대

참여마당

오정탁

(무역학 2015)



길을 걷다 장애학생을 보면 ‘힘들겠다, 불편하겠다,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한다. 하지만 이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의 도움이 상대방에게는 불쾌함을 안겨줄지도 모르는 노릇이기에, 멋대로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없기 때문이다.

하루는 수업을 듣기 위해 평소와 다름없이 청운관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내 바로 앞에는 디리가 불편한 학생이 복도를 걷고 있었다. 여느 학생과 다름 없이 가방을 멘 채 강의실을 향해 걷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아마도 비장애인인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속으로는 ‘가방이라도 들어드릴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작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그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후회와 미안한 마음이 가슴 속에 가득했다.

며칠 뒤 나는 정경대 강의실 앞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이전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내 시끌 시끌한 소리와 함께 수업이 끝났고, 뒷문으로 훨체어를 타고 있는 한 학생이 나왔다. 그 모습을 본 나는 문득 ‘이번에는 저번처럼 행동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어 그 장애학생을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려고 했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 나오는 어떤 남학생이 장애학생을 이미 돋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그 둘은 단지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라기보다는 그저 친한 친구 사이 같았다. 뭐랄까, 일시적으로 돋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랜 시간을 함께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학생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장애학생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었다.

장애학생 도우미가 부족해 장애 학생의 불편함을 제대로 해소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장애학생 도우미에 궁금증이 생긴 나는 청운관에 위치한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이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다. 장애학생 도우미 프로그램은 장애 학생이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편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비장애인 학생이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장애학생 도우미 프로그램의 지원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장애 학생 한 명당 두 세 명의 도우미가 필요한데, 충분한 지원자가 없어 장애 학생의 불편함을 제대로 해소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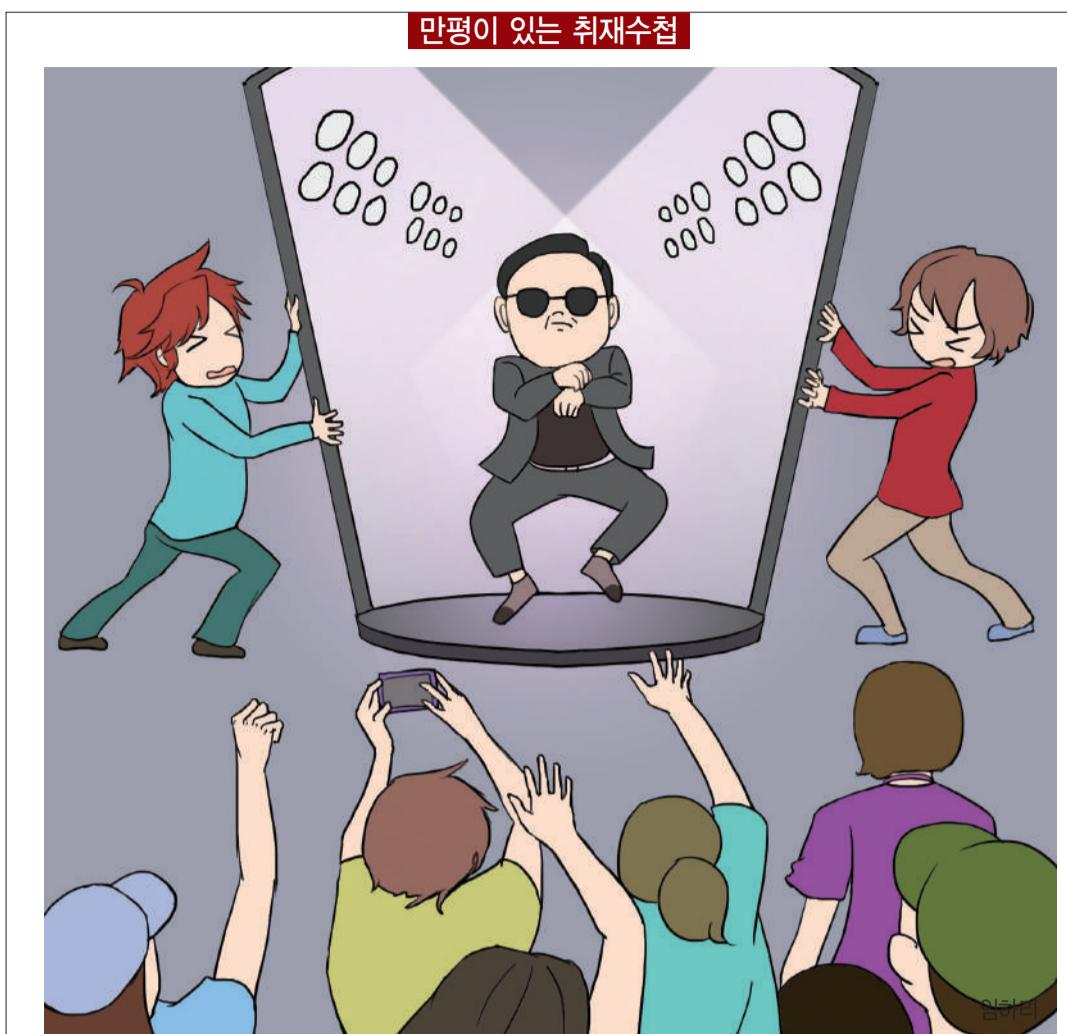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장애 학생 도우미로서 장애 학생을 도와줄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다. 장애 학생에게는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친구 같은 도우미가 좀 더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 학생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비장애인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운 부분을 도와준다면 함께 학교 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심태식 前 총장 별세 향년 92세

미디어 여론동향 2015. 5. 4 ~ 5.17

여론동향팀 khunews@knu.ac.kr

심태식 전(前) 총장이 지난 7일 별세했다.(**심태식 전 총장 별세/대학주보 온라인**, 2015.5.12) 향년 92세. 심전 총장은 1923년 서울에서 태어나 1951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1955년에 우리학교 교수로 임용됐고, 1960년부터 1년간 한국일보 논설위원, 1966년부터 3년간 경향신문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1975년에 우리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78년부터 1980년까지 우리학교 기획관리실장을 맡았다. 이후 지난 1982년 10월 우리학교의 제5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고인은 취임사에서 밝힌 ‘스승은 존경받고 열심히 가르치며, 학생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사랑받는 학원을 건설하겠다’는 목표 아래 1984년까지



양 캠퍼스 축제기간, 열어지는 ‘함께’의 가치 ‘축제’를 팝니다

최승욱 기자

<dotori14@knu.ac.kr>



우리학교의 축제는 다른 대학의 그것보다 역사가 길다. 1956년 10월 20일부터 3일간 진행된 개교 7주년 기념 ‘제1회 대학제’는 우리나라 대학축제의 모태다. 당시 대학제를 앞두고 우리신문은 사설에 ‘재학생 각 개인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만 그 참된 의의를 발휘할 수 있다’와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돼야 한다고 적었다.

무려 59년 전의 주장이다. 모든 학생들이 기획과 준비에 참여하고 다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온전한 학생문화로서의 축제. 실제로 ‘대동제(大同祭)’라는 명칭에 어울리는 것이 당대의 축제문화였다.

하지만, 지금의 대학축제는 더 이상 ‘대동제’라고 보기 힘든 것이 되어버렸다. 어느샌가 대학축제를 대하는 학생들은 ‘기획자’ 아니면 ‘향유자’들 중의 하나로 나뉘어졌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축제기획단, 프로그램 운영자, 그리고 놀 뒤에서 고생하는 청소노동자와 관계부서 직원들은 힘들지만 재밌고, 어렵지만 괜찮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축제를 찾는 이들은, 불현듯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 축제의 요소요소를 지적하고 평가하기 바쁘다.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를 준비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부류로 나뉘는 축제가 반복될수록, 화려한

볼거리로 위해 ‘외주’에 기대려는 경향이 틈타게 된다. 참신한 기획이라는 것은 언제나 머리터지도 록 어려운 것이고, 웬만해서는 학생들의 좋은 ‘평가’도 받기 어려운 노릇이니. 학생들을 쉽게 만족시킬 수 있는 유명 연예인의 티켓과워에 축제의 ‘흥행’을 기대려는 것이다. 연예인을 초청하는 일은 축제의 기획자들이 많이 해본 업무가 아니기에, 이를 깔끔하게 처리해줄 수 있는 외주-이를테면 최근 대학가 축제들을 휩쓴 ‘카스’ 콘서트와 같은-업체들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은 자연스런 수순이다.

국제캠퍼스 축제 ‘좋KNU요’가 지난주 15일 막을 내렸다. 오는 20일부터 서울캠퍼스 축제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 시점에서 ‘축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축제가 준비하는 이들과 소비하는 이들로 나뉘는 순간, 그 축제는 더 이상 공동의 가치관이 투영된 학교의 장이 아니게 된다. 그 순간 이후로 축제는 오직 흥행 여부만이 판단지표로 작용하는 단순한 콘텐츠가 되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묶여 상업화되거나 소멸하는 양 단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라는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고 유효하다. 이것은 고루한 과거의 관습이 아니며, 오히려 대학축제가 간직해야 할 본연의 가치다. 59년 전 사설에서 ‘우리대학의 전통이 이 기회에 이뤄질 것이니 이번 행사가 본교 발전에 지대한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했던 마음을 이어가길 고대한다.

총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하민아(태권도학 2014) 선수가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리스트인 ‘여제’ 우진위(중국)선수를 꺾고 2015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단 첫 메달을 금빛으로 물들였다.(**세계태권도-女49kg급 하민아, ‘여제’ 우진위 꺾고 금메달/연합뉴스**, 2015.5.15) 하 선수는 지난 14일 러시아 첼라빈스크의 트락토르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49kg급 결승에서 우진위를 연장전 끝에 4-3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울산 모비스를 우승으로 이끌고 은퇴한 박종천(스포츠지도학 99) 동문이 부산 케이티 코치로 부임하며 제2의 농구 인생을 시작한다.(**부산 케이티, 신임 박종천 코치 영입/巴斯켓코리아**, 2015.5.13) 박 동문은 2003-04 시즌 서울 삼성성을 통해 KBL에 데뷔했고, 2007-08부터 울산 모비스에서 활약 후 은퇴했다. 3점슛과 수비에 강점이 있는 박 동문은 주로 스크리브으로 코트에 나서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3점슛과 수비를 통해 존재감을 보여줬다.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국제캠정문 아저씨’(#경희숲_8639, 2015.5.8)에 관한 내용이

글이 인기가 높았다. 이 글은 126개의 ‘좋아요’와 2개의 댓글을 기록했다. 글쓴이는 “정문 앞에서 힘차게 거수 경례를 해주시는 아저씨가 정말 멋지다”며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느껴진다”고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힘차게 거수경례를 하는 아저씨를 보면 저도 힘이 나요”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마크 리퍼트(Mark William Lippert) 주한미국대사와의 태운홀 미팅’이 지난 7일 네오르네상스관 네오누리에서 열렸다.(**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와의 태운홀 미팅/대학 홈페이지 Focus**, 2015.5.8) ‘같이 갑시다! 주한미국대사와 한국 미래세대의 대화’를 주제로 열린 미팅에는 학생, 교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리퍼트 대사의 강연에 이어 질의응답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날 리퍼트 대사는 한국과 미국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대화를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 관계는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등 강화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이 함께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해가자”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사이버, 기술, 우주, 에너지, 환경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교육부의 ‘안전관리 대책’ ‘책상 위’ 행정의 전형

세시봉

백승철 <편집장>



교육부는 매년 반복되는 대학교 수련회, MT, 오리엔테이션(OT) 등의 음주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4일 ‘대학교 MT 등 학교행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학생들이 수련회나 MT 등을 가기 전에 학교 측이 ‘자체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신입생이 참가하는 OT가 실시되기 전에 응급처치와 음주문화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건 이후 외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연수와 신입생 OT에 대해 안전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사고대처 방안 등을 담은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학생 활동의 자치를 침해한다’는 반발만 불러왔을 뿐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제는 교육부가 대학행사에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공문만 발송하는 ‘땜질식 처방’만 반복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도 올해 초 대학에 보낸 공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대학교 MT 등 학교행사 안전관리 대책’의 구체적인 항목인 ‘학생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비상약품을 지원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은 이미 지난해에 발송한 내용의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또한 학교 측이 마련해야 하는 ‘자체안전 확보 방안’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나 매뉴얼이 없어 또 다시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허술한 대책은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될 수 없다.

목적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학’ 마디의 문제 정도부터 파악해야 한다

‘과음’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감한다. 오히려 MT나 OT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육부의 협소한 시각을 넘어서 학교 축제부터 동아리 행사, 개강총회 등 학생문화 전반에서 자주 목격되는 과도한 음주문화는 항상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학교 학생회나 질주동아리 등의 활동사례들처럼, 축제 전 주점운영자들을 모아 음주관련 교육을 하고, 주류지원 사업을 토대로 그 ‘양’을 조절하는 등의 세밀한 방식이 더 효과적인 것은 분명하다.

교육부가 ‘대책’이란 시기별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방식은 본질에 닿지 못한다. 책상 위와 현장은 늘 다르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당장 우리학교 안에서도 단과대학마다, 학과마다, 심지어 사람마다 공유하고 있는 음주문화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조치는 옛날 ‘문교부’ 시절이나 통할 일이다. 진정으로 목적으로 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학’마다의 문제의 정도부터 파악해야 한다.

대학구조개혁과 같은 ‘국가교육의 명운이 걸렸다’던 사업조차 기준도, 목적도, 방법도 휘청대는 조직에게 너무 큰 기대일지도 모르겠지만.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진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주) |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인터넷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nu.ac.kr> | 이메일 khunews@knu.ac.kr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립경희대학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양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잔혹동시'보다 더 잔혹한 현실

아동의 '표현의 자유'



'잔혹동시' 논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어린이가 그런 시를 쓸 수 있는가?'라는 놀라움이다. 이런 놀라움은 '어린이는 이러이리해야한다'는 규범적인 가치판단을 전제한다. 특정한 어린이만이 어린이일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믿음은 말 그대로 믿음일 뿐, 사실이 아니다.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에 어린이라는 말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근대적 산물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에 대한 정의는 발명된 것이지 처음부터 존재했던 무언이 아니다. 서양에서 어린이는 사람이지만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말하지 못하는 생명체'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괴물'이 어린이였다. 어린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결정적으로 바뀐 것은 상속이라는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했기 때문이다.

경제체제가 바뀌고, 상속을 통해 사유재산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어린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것이다. 이 사실에서 명쾌하게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수의 상식들은 근대적인 산물이다. 비록 전통의 모양새를 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역사적인 맥락을 따져보면 생소한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에서도 어린이라는 말은 '인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과 무관하지 않다.

어린이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인권'을 누릴 수 있다는 자각은 근대적인 것의 핵심사상이다. 이런 사상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사실상 동등하다는 근대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딜레마는 여기에서도 반복된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극단은 방임주의이고, 민주주의에 찬성하는 이들조차도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무정부상태에 대한 경계심을 버리지 못한다.

'잔혹동시'라는 규정 역시 방임주의에 대한 경계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지만 민주주의를 거부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잔

“

혹동시' 논란에 숨어 있다

”

그런 시를 썼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생각에서 '어른이 그런 시를 출판하도록 방조했다'는 생각까지 속내의 표현은 다양했다. 그러나 이 분열은 결과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이중적 태도, 더 나아가서 어린이라는 존재를 규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증상일 뿐이다.

어린이가 그런 시를 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거나, 그런 시를 동시에 부를 수 없다는 생각은 어린이에게 절대적 표현의 자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딜레마는 더욱 깊어진다. 이런 생각에 찬동한다면,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존재에

게 허락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라는 범주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논리가 옳다면 표현의 자유는 자의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잔혹동시' 논란은 이처럼 단순히 어린이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샤를리 애브도 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응호되었던 표현의 자유는 '잔혹동시' 논란에서 자취를 감춘다. 장동민의 성희롱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표현의 자유가 모든 발언에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언제나 도전에 직면하는 것이고, 이런 도전에 맞서 우리는 기준을 마련해야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어

떻게 갖춰질 수 있을까.

말할 것도 없이 공론을 통해 가능하다.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 발생하고 절대적 믿음에 대한 위기가 도래했을 때, 황급히 그것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에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가 되는 시집을 수거해서 폐기하거나,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되풀이하면서 소나기가 지나기만을 기다리거나, 내부의 적을 만들어내어서 모든 문제를 덮어씌우는 것으로 공론을 대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내가 보기엔 이런 상황이야말로 '잔혹동시' 보다도 더 잔혹한 현실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진정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10살 어린이가 썼다는 '잔혹동시' 라기보다, 이렇게 공론을 회피하고 위기상황을 초래한 문제를 재빨리 덮어버리려는 시도이다. 원인을 짚어서 해결책을 도모하기보다, 내 아이에게 피해를 초래할 것 같아서, 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규범을 위협하는 것 같아서 사건의 당사자를 비난하고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태도는 특정한 규범만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여 만들어서 그렇지 않은 것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강박을 낳기 때문이다. 베제의 논리가 어떤 비극을 초래했는지 인류의 역사는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다. 정상적인 것은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과거에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후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미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 다르듯이 정상성을 결정하는 규범도 시대마다 다른 것이다. 가치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개방적 태도야 말로 특정 사안에 대한 불편부당한 판단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미덕이 아닐까.

《전습록》, 마음의 공부와 실천하는 삶을 전하다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53**

홍승태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란 특정분야의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학습'(學習)을 의미한다. 옛 한자 어 '工夫(공부)'는 관련분야에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과 노력 혹은 능력이나 조예(造詣)를 뜻하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그 공부의 대상이 나의 '마음'이라면, 시시각각 자극에 반응하는 주관적 마음의 움직임을 공부할 수 있을까? 심지어 "나의 마음이 곧 이치이며, 마음 바깥에 그 어떤 사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양명학의 창시자이자 명나라 사상계의 거장 왕수인(王守仁, 1472-1528)에게 '공부'란 우리가 말하는 객관적 대상에 대한 지식의 탐구나 실용적 지식을 넘어선 '삶' 자



'마음 곧 이치'라는 명제는 이치가 어딘가에 따로 존재하는 것 아니라 마음을 통해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개별 사물들의 이치가 내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한다는 뜻이

체에 대한 성찰이다. 『전습록』은 바로 왕수인(왕양명)의 어록과 서신을 후대에 편집한 책이다. '전습'이란 공자의 『논어』에 나온 "경전을 익혔는가?(傳不習乎)"에서 따온 말로, 경전에 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자기의 것으로 익힌다는 뜻이다. 『전

습록』은 '좋은 삶', '훌륭한 삶'을 위해 내 밑바닥의 순수한 본심을 발현하는 수양공부에 관한 대화록이자 양명학의 교과서이다.

전근대의 중국은 물론, 조선왕조 500년간 독보적 지위를 차지했던 주자학에 대한 거칠없는 비판을 통해 그 사상의 체계를 이룬 학문이 양명학이다.

『전습록』에는 인간의 본심과 도덕실천의 방법, 배움과 삶의 관계 등에서 주자학의 관점과 정면으로 맞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성이 곧 이치'(性卽理)라는 주자학의 확고부동한 명제에 맞서 '마음이 곧 이치'(心卽理)라는 주장을 펼친다. 여기서 '마음'이란 물질 혹은 몸과 대비되는 이원화된 사고의 틀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다.

'마음 곧 이치'라는 명제는 이치가 어딘가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개별 사물들의 이치가 내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달아 있는 것이

곧 그 사물 혹은 사태를 의미한다. 내 마음이 부모를 대하는 데 달아 있다면 부모를 모시는 것은 마음이 닿는 하나님의 사태이자 대상이 된다.

그러한 사태 속에서 내 마음의 올바름을 드러내는 과정이 곧 격물(格物)이다. 나와 사물(대상), '안과 밖'의 관계가 분리되지 않고, 그 사태 혹은 대상으로부터 곧바로 내 마음의 올바름을 얻는 실천을 의미한다.

"마음 바깥에서 어떤 이치를 구하는 것, 이것은 암과 행동하는 것이 둘로 나뉘는 까닭이다. 어떤 이치를 나의 마음속에 구하는 것, 이것이야 말로 성문(聖門)에 들어서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의 가르침이다." 『전습록』)

주자학이 안과 밖을 독립된 것으로 보고 밖의 이치를 추구하여 안의 마음을 완전하게 보충하려 했던 것에 비해, 양명학은 안과 밖은 결국 하나의 것으로, 내면적 마음의 수양을 학문의 중점에 두었다.

이기적 욕망으로부터 나의 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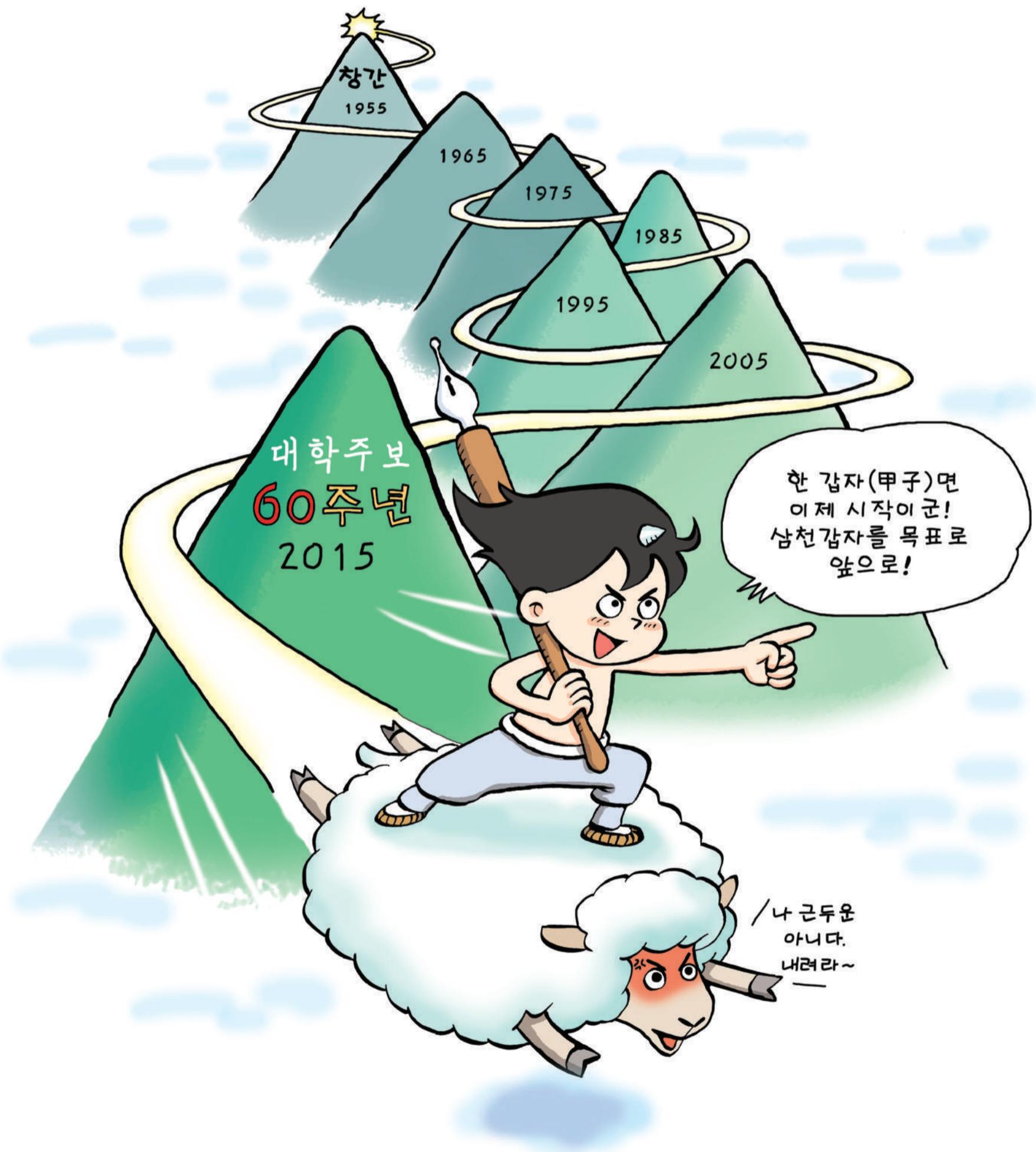
한 마음을 보존하고 확장시키는 실천이 곧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전습록』은 말하고 있다.

"암(知)은 실천(行)의 목적이며, 실천은 암의 수행이다. 암은 실천의 시작이며, 실천은 암의 완성이다." 암과 실천은 모두 마음의 작용으로, 양명은 이 마음을 '양지(良知)'라고 불렀다. '양지'는 곧 '양심(良心)'이며, 사람에게 누구나 선천적(선험적)으로 내재한 순수한 본심이다. 이러한 본심이 대상으로부터 족발되는 왜곡이나 이기적 욕망으로부터 스스로를 보존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그는 '양능(良能)'이라고 불렀다.

왕양명은 전사(戰士)였다. 실제로 수백 번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전쟁터의 전사였으며, 동시에 자신의 내면과 인간 본심을 치열하게 성찰했던 '사상적' 전사이기도 했다. 그에게 암(지식)은 삶과 분리되지 않는 실천을 의미하며, 동시에 마음의 올바름을 드러내는 과정이 곧 삶의 공부였다.

대학주보 창간 60주년

혁신의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khunews@khu.ac.kr



<http://media.khu.ac.kr/khunews>

일러스트 김종범 만화가